

## Retrospective DUR on the Drug Prescription at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 a University Hospital

박 병 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약물처방내용을 분석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처방을 발견하여 처방자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처방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5년 12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2주 이상 입원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인적사항, 과거병력, 진단명, 환자의 증상, 약물처방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의무기록지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표준양식지를 개발하였다. 평가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색하여 요약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들에 대한 약물처방 발생 시마다 그 약물 치료의 필요성, 치료약제 선택의 적합성, 투여용량의 적절성, 및 약물상호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자들 간의 평가 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단일 평가자의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한 처방 당 3명이 이를 평가하였다. 평가된 내용을 코딩하고 전산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처방건수 단위로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환자단위로 다빈도 처방약물명을 파악하였다.

입원환자별 처방 받은 약물 가지수 분포는 0~4가지 약물 6.5%, 5~9가지 약물 33.7%, 10가지 이상 약물 59.8%이었다. 다빈도로 처방된 약물은 D5W (38.2%), furosemide (25.6%), cisapride (24.6%), Simeco (24.6%), D10W (22.1%) 등이었다. 약물처방 필요성에 대한 전체 평가는 A가 54.1%, B 37.8%, C 7.5%, D 0.6%이었고, 처방 필요성이 낮다고 판정된 약물은 Varidase, Bearse, Vit-K, Proamine, Phazyme 등이었다. 약물처방의 선택적합성에 대한 전체 평가는 A가 55.9%, B 38.1%, C 5.4%, D 0.6%이었고, 약물선택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정된 약물은 Varidase, Vit-K, Augumentin, Proamine, Plasol, Phazyme 등이었다. 약물처방의 용량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A가 54.8%, B 39.5%, C 6.3%, D 0.4%이었고, 처방된 용량이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약물은 Varidase, Augumentin, Proamine, Prazocin, Plasol 등이었다.

무작위 표본을 위해 내과 전체 입원 환자 명단을 이용하였으나 내과의 질환별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약물처방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결과(peer review)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전향적 DUR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약물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DUR의 기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내과의 질환별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수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약물 사용양상분석의 수행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러한 방법론을 전국 규모의 약물처방내용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내 약물요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